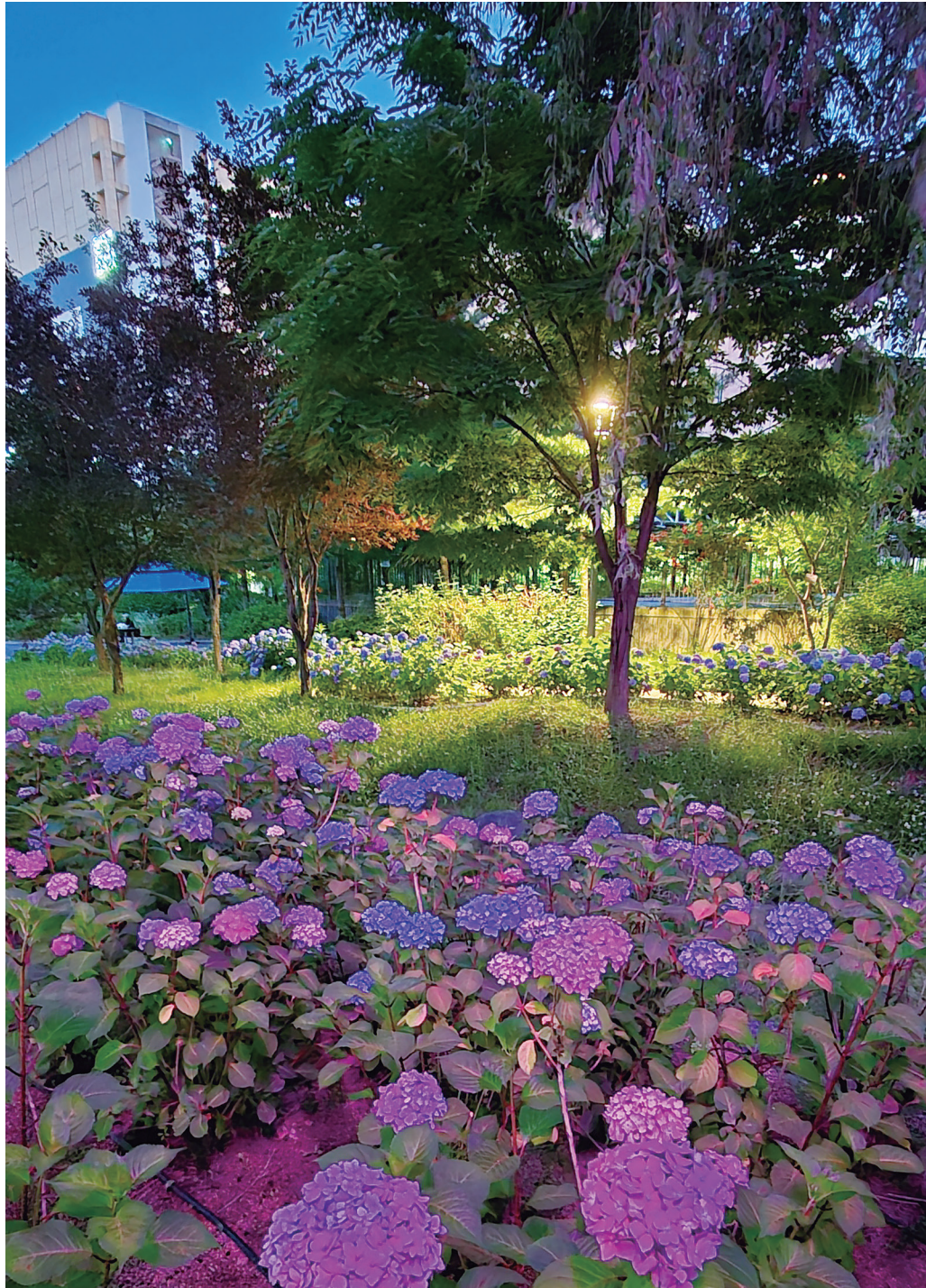




주요 소식

- 탄소중립 신드롬을 기대하며
- 행복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 같이 만드는 조직 '가치'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한 걸음 더

충남편

- '백제의 고도' 역사문화벨트로 관광 및 여가수요 창출
- 인접도시와의 연계 강화로 "더 가깝게, 더 편리하게"

지난 5월 행안부가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메가시티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도로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550만의 거대 공동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고유한 기능들이 상호보완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각지에서 인구 5백만 이상의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충청권이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북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공이 컸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근간 "행복도시권 광역도로망"

행복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국가주도로 건설 중인 신도심입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전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광역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 충남권, 충북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권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를 단축한 '행복도시~정안IC 연결도로', 행복도시와 충남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1·2구간)' 등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사후평가에서 이들 도로의 개통으로 통행시간은 5분~6분 빨라졌고, 지가 3.7%/년, 종사자수는 4.7%/년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백제의 고도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

지난해 8월 착공한 '행복도시~공주(3구간) 연결도로'는 1방향 통행만 가능한 기존 금강교 옆에 제2금강교를 신설하여 공주터미널과 행복도시를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잇습니다. 이를 통해 공주 구도심과 신도시인 행복도시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공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비롯해 부여~청양~논산에 이르는 백제문화권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유발하고 각종 경제·사회적 효과를 파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8월 완공예정이며, 2046년까지 하루 1만 5,600대 수준의 교통량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주, 내포신도시와의 상호연계·보완으로 생활여건 개선과 시너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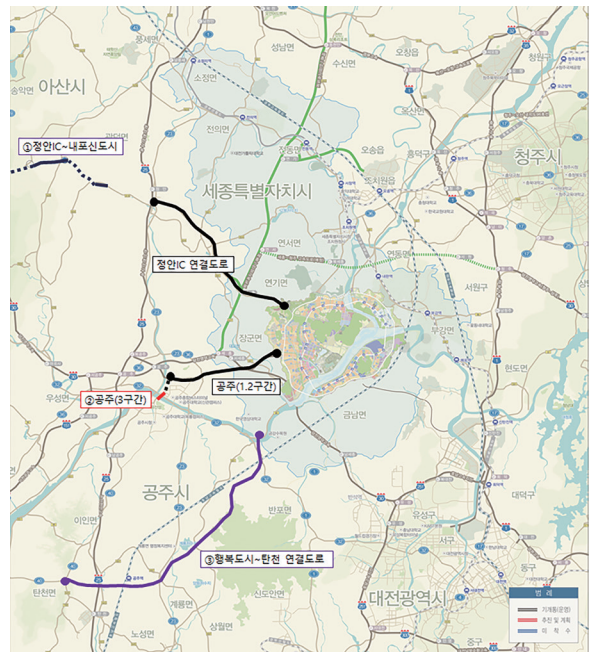
메가시티의 핵심은 인접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신속하게 연결함으로써 단일 도시에 부족한 기능들을 상호보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공주,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충청권 광역교통·물류 거점인 KTX공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9년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간망인 고속철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관광·여가 등 행복도시권의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와 공주·청양·논산·부여 등 인접도시 간 통행시간을 최대 13분까지 단축함으로써 30분 내 의료, 교육·문화,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면적과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혁신도시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충남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해안권·내륙권·금강권을 연결하는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형렬 청장은 “행복도시권 광역도로 구축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이 가운데 충남권 광역도로망은 백제 역사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인접 지역은 물론 내포신도시까지 생활권을 확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광역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신드롬’을 기대하며

최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가 ‘신드롬’입니다. 본디 질병으로서 ‘증후군’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요즘에는 ‘○○앰’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SNS라는 간편한 창구와 유튜브와 같이 빠르고 감각적인 영상매체가 확산되고,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급속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쓰이는 듯합니다.

여전히 눈길을 끄는 신드롬 중 하나가 ‘푸바오 신드롬’일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푸바오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는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푸바오가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판다여서, 번식을 위해 세계 최대 서식지인 중국 쓰촨성으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연유로 ‘푸바오 신드롬’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드롬을 일으킨 푸바오 외에도, 좀 더 절실하게 우리가 ‘신드롬 급’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북극곰입니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구온난화로 살 곳이 점차 줄어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의 눈물은 수년째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 문제가 꾸준하기 때문 아닐까요. 문제는 이제부터는 북극곰만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케냐에서는 지난 2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금년 3월부터는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 수가 2백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의 대표적인 노력이 탄소중립일 것입니다. 2015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지구온도 섭씨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21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탄소 배출량은 총 5억 8,860만(추정)으로 2022년 6억 580만t 대비 2.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인 바, 원전 및 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력발전을 줄인 효과로 분석됩니다.

국내 주요 지자체 역시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탄소중립 실천을 필수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 중입니다. 2030년까지 서울은 2005년 대비 42%, 부산은 2018년 대비 45%, 광주 2018년 대비 45% 감축을 공언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선도적인 탄소중립 도시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4% 탄소배출 감축과 함께 탄소중립 시기를 2040년으로 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시한을 국가 목표보다 10년 앞당겼다는 것은 도시건설과 인구가 증가하는 여건 속 도전적인 목표라 할 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가히 성공적입니다. 행복도시의 탄소배출량은 77만tCO₂(2021년 기준)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1인당 배출량(2.74tCO₂)을 광역시도별로 비교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에너지 분야에서 어떠한 에너지원을 발전에 사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LNG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보다 높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일반발전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49.9%인 반면, LNG 열병합발전은 80.7%(전력 42.1%, 열 38.6%)에 달하며, CO₂ 배출량도 화력발전 대비 40% 수준으로 가히 친환경적입니다.

행복도시는 건립 초기부터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공급시설인 LNG 열병합발전소를 남·북측에 각각 1개씩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북측 열병합발전시설은 수소혼소 가능설비로 기존시설 대비 CO₂를 10%이상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LNG에 수소 30%를 혼합하는 설비를 추가로 도입한 결과입니다. 또한, 태양광 50MW, 지열에너지 155MW, 연료전지 5.6MW 등 신재생에너지 총 211MW를 도입 하였습니다. 이들이 감축하는 CO₂ 양만도 약 10만t으로 소나무 약 440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수준입니다. 친환경 차량의 운행 편의를 뒷받침하는 연료 인프라 확충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전기버스 11대, 전기차 4382대 등 친환경차가 전체차량 등록대수 대비 10% 수준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3906기로 차량 1대당 0.89기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제를 도입해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이 최적화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등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입니다. 행복도시는 도시 내 57개 건축물이



ZEB인증을 받았고 특히, 공동주택 중 전국 최초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6-3생활권은 에너지 자립률이 67%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어느 수단보다도 강력한 탄소중립 수단은 자연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녹지율 제고에 몰두하는 이유도, 단순히 미관 목적을 넘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성된 신도시들의 녹지율은 대체로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탄2 31.4%, 광교 41.7%, 송도 32.4% 수준이다. 행복도시는 52.8%에 달하며, 배출량 대비 감축량도 약 8%로, 동탄2의 4%, 광교의 3% 수준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먼 듯 합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의 실질적인 감축이 의문시 되고, 탄소중립 선도국인 영국, 독일은 에너지 안보 위기로 화석연료로 회귀 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연평균 감축률은 1.98%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의 감축률은 연평균 4.6%에

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와 전망치 간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 격차율도 34.2%로 G20 평균 25.0%를 크게 상회합니다. 감축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문 녹색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450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목표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 곳곳에서 탈원전 주장이 커지게 된다면 이 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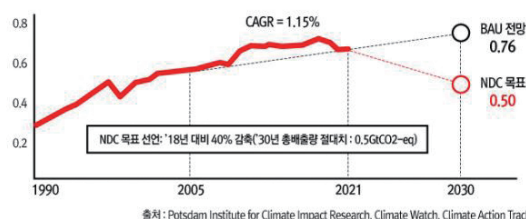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북극곰의 눈물'은 임계점까지 몰린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MIT Technology Review가 우리나라를 아시아 유일 '녹색 선도국(Green Leader)'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실천방안을 '천천히 서둘러야(Festina Lente)' 할 시점입니다. 봄 답지 않게 유난히 따가운 햇살과 북상하는 국내산 열대과일이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신드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G20국가의 감축격차율 (단위: % / 5개국(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제외)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전망 (단위: GtCO₂-eq)



행복청, 아프리카와 '함께 만드는 미래'에 동참

• 행복청장, 탄자니아 대통령과 양자 면담 및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참석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31일에 탄자니아 사미아 술후루 하산 대통령(이하 하산 대통령)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6월 5일(수)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 참석해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건설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5월 31일에 김형렬 청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하산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영접하고, 이어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하산 대통령 방한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공식 일정임과 동시에 탄자니아 정부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면담에는 하산 대통령을 비롯해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 주한 탄자니아대사 등이 참여하여, 양국 간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50여년에 걸쳐 건설 중인 신수도 도도마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탄자니아 정부에 행복청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보여준 자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은 그 간 신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경험 전수 및 컨설팅을 요청한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탄자니아 카심 마잘리와 총리의 초청

으로 김형렬 청장이 탄자니아 현지를 방문,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협력 의견을 교환하고, 수도이전 및 도시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6월 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 참석하여 또 한 번 하산 대통령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 케냐 도로교통부 장관, 가나 도로부 장관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설명하였습니다.

도시 건설 불과 17여년 만에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한 행복도시 건설사례는 신도시 개발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하산 대통령의 방한과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해나가는 한편, 이들 국가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행복청-세종시교육청, '과학문화센터' 설계 본격 착수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응모작품 당선작 선정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행복도시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결과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응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문화센터는 학생, 교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과학 프로그램, 공연, 전시·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일원(5-1생활권, 청5-6)에 총사업비 497억 원, 부지면적 9,444㎡, 연면적 약 12,000㎡의 규모로 지어지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4개 업체가 출품하였으며, 행복청에서 개최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 1개와 입선작 2개를 선정하였고 심사의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은 가변성과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내부공간을 설계하였으며,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평면 구성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공간에 대해 인근 공원과 학교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당선작 및 입선작은 정부세종청사 6동 안내동에 전시하여 공개할 예정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송정순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은 “과학문화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유용하게 기여하는 공간으로 차질 없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조감도



정면도



배면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로마제국은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군대의 이동, 교역, 통신 등을 위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은 로마제국의 통합과 확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 간 교류를 촉진시킨 인류사의 중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철도는 서부개척과 이주를 활성화하였고, 이후 미국이 거대한 영토를 완성하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의 발달은 물자와 인력을 빠르게 실어나르며 인간의 생활환경과 물리적 한계를 넓혀왔습니다. 또, 활발한 인적 교류와 정보의 교환은 인류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일원의 신도심으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2006년 도시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에 “전국 주요도시와 2시간 내외 연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행복도시권과 전국의 주요도시 접근성 1시간 내외”라고 하는 세부지표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고속도로, 철도 등 행복도시와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당초 12개 노선 114km이었던 사업 규모가 3차례의 변경을 거치며 21개 노선, 165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4.5월 기준 청주IC, 정안IC, 공주IC, KTX오송역, KTX대전역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12개 노선, 90km가 이미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회덕IC, 공주터미널, 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지금 공사가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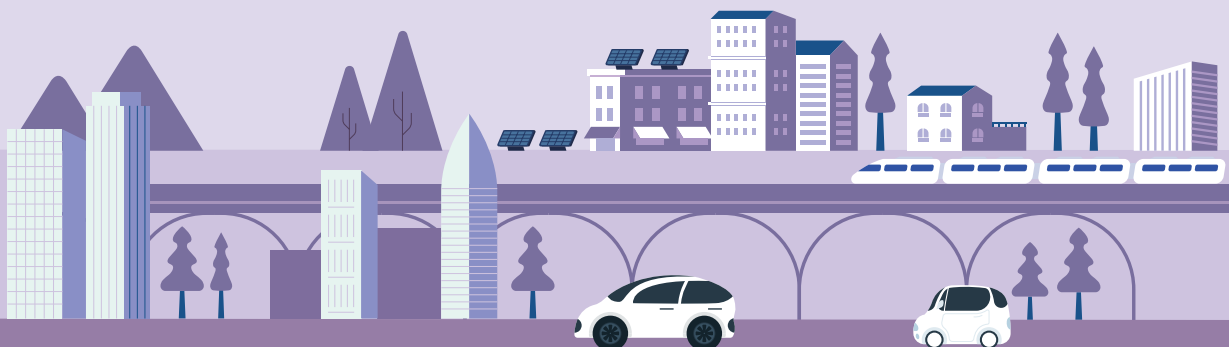
입니다. 이밖에도 북대전IC, KTX공주역, 청주국제공항과 행복도시를 잇는 광역도로가 현재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행복청은 광역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릴 만큼 정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대전역, 유성복합터미널, 오송역 등 연결도로에 BRT 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내부 순환노선을 포함한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향후 KTX공주역, KTX천안역 등까지 확장하여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행복도시권 BRT 이용객은 운영 첫해인 2013년 67만 명에서 2023년 1123만 명으로 불과 10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전~청주~세종~공주 간 ‘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시행되어 앞으로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도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어 향후 전국에서 행복도시로의 이동이 더 쉽고 빨라질 것입니다.

최근 전국 최초로 충청권 4개 시도를 묶는 특별자치체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초광역 메가시티와 함께 새로운 경제생활권의 탄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지사당 건립도 본격화되면서 행복도시는 실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청은 행복도시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실질적 행정 수도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행복도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범도시로 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만드는 조직 '가치' 성장하는 행복청, 키워드는 '소통과 혁신'



- “베이비부머부터 MZ까지” 세대가 함께하는 ‘어벤져스 플러스’ 발대
- 현장에서 협업·행동·해결하는 정부혁신으로 “국민체감도 UP, 행복도 UP”

“혁신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많이 듣고 배우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곧 행복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도시에 대해 궁금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난 5월 23일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플러스 직원들과의 브라운백 미팅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이 거듭 당부한 사항입니다.

‘MZ’가 시작하고 ‘라떼세대’가 참여하는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플러스”

2019년부터 행복청은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조직적응과 성장을 돕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띤 토론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불필요한 회의문화를 개선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연가 및 유연근무 자율화, 과도한 의전이나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 행복청 조직을 탈바꿈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제5기 출범을 맞아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에 처음 입문한 새내기부터 경력 20년차 베테랑까지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어벤져스 플러스’로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MZ세대와 ‘라떼는~’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가 리버스멘토링, 브라운백 미팅 등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조직문화의 새로운 난제인 세대 간 갈등해결에 힘을 합친 것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는 곧 국민을 위한 혁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금년 상반기 행복청 조직문화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혁신 정책 아카데미’와 전 직원 대상 ‘전국 명소, 핫플 탐방’으로 요약됩니다.

정부혁신 아카데미는 기존의 정형적인 직장교육에서 탈피하여 역량강화 교육에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골목길 경제학자 연세대 모종린 교수, 미술관의 아이돌 정우철 도슨트, 총TV 김선태 주무관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3차례 특강을 열었습니다. 타 부처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또, 직원들이 끊임없이 도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야한다는 김형렬 청장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명소와 핫플 탐방이 연례 체육대회를 대체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러한 시도들이 행복도시를 골렘도시로 만들기 위한 벤치마킹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현장·협업·행동·해결” 4대 원칙에 기반한 “민생 우선하는” 정부혁신 추진

조직문화의 혁신은 곧 사업성과로도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행복청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행복청은 먼저 “For Better Move”를 슬로건으로 행복도시형 도시모형을 구축·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인 공공복합단지,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리빙랩, 혁신 교육·연구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캠퍼스 등 사업이 포함됩니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솔루션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하다)”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특히 현장소통과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집중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조직도, 도시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조직과 직원들의 역량도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의 혁신역량이 곧 행복도시의 발전 동력”이라면서 “앞으로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꾸준히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국민의 더 나은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혁신 과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찾았다 행복청 필수 아이템... 운영지원과 보물들을 소개합니다!



맹정수 주무관

소개

- 담당업무: 관급자재 계약 및 예산집행
- 별명: 맹~^^ (맹씨라서)
- MBTI: ISFP
- 근무기간: 5년차

행복청 삼행시

- 행복은
- 복잡한 세상속에서
- 청춘으로 용기내는 너의 것!

우리 과장님은 ○○○이다.

- 우리 과장님은 나이스가이다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차가운~!)

• 제일 일하기 싫은 날?

근로자의 날

• 하루 중 가장 퇴근하고 싶을 때

열일하고 퇴근할까 했는데 3시밖에 안됐을 때

• 요즘 즐겨듣는 노래

끝이라고 말하지만 JAEHA



임동현 주무관

소개

- 담당업무: 교육·상훈·복무·징계
- 별명: 프로참석러(장소, 시간, 대상 불문 모두참석)
- MBTI: ENFJ (F와 T가 점점 비슷해지는 중,,)
- 근무기간: 1년 3개월

행복청 삼행시

- 행복청에 왔으면
-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 청명한 미래를 함께해요!

우리 과장님은 ○○○이다.

- 우리 과장님은 유재석이다.
(지식도 많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 가장 이직하고 싶을 때?

전문직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가 합격턱 쓸 때

• 내가 MZ라고 느낄 때?

휴가 다녀와서 1시간 뒤 다음 휴가 계획 짜는 나를 볼 때

• 인생의 좌우명은?

놀 수 있을 때 놀아야 한다.



김민정 주무관

소개

- 담당업무: 물품·보안·복지·서무
- 별명: 당근 중독자 (빠져나올 수 없는 당근의 매력)
- MBTI: ISTP
- 근무기간: 1년 9개월

행복청 삼행시

- 행복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
- 복이 넘치는 일터
- 청춘의 열정이 가득한 행복청!

우리 과장님은 ○○○이다.

- 우리 과장님은 행복청 바리스타이다
(과장님이 내려주신 커피는 최고!!)

• 제일 출근하기 싫은 날은?

날씨가 좋아도,..날씨가 나빠도!

• 내가 생각하는 꼰대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다름 ≠ 틀림)

• 인생영화가 있다면?

해리포터, 영화와 함께하는 순간은 나도 마법사
(윙가디움 레비오우사~)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사자성어 배워가기

마

(磨)

부

(斧)

위

(烏)

침

(針)

'도끼를 갈아 비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행복이와 한글교시(6교시)

1. '하늬바람'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서쪽에서 부는 바람 (O)
- 동쪽에서 부는 바람 (X)
2. '들이켜고'와 '들이키고'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니 살 것 같다. (O)
-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니 살 것 같다. (X)



알듯말듯 우리 속담 알아보기

- ① 고기는 안 잡히고 [?] [?] [?]만 잡힌다.
- ② 맹물에 [?] [?] [?]을 삶아 먹더라도 제멋에 산다.

* 5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 뼈다귀

2번 : 마음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이곳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를 주제로 한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품종별로 꽃의 사진과 이름이 나와 있는 안내판이 있으며,
무궁화가 식재된 정원에는 품종을 알 수 있도록 따로 표시판을 두었습니다.
또 갖가지 수목이 식재된 조형미로원, 세계 각국의 나라꽃이 있는 세계 국화원, 유아숲체험원과 숲속 휴게 공간인
휴게 정원 등이 갖추어져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초성인트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다 작성해서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Better HEALTHY Better LIFE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 5. 20.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해보세요!

인도이드 용 아이폰 용
앱 설치용 QR코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국가보훈부

법무부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 1. 일상 생활 중에**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하세요
-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대비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 3. 산사태 발생 시**
대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 4. 산사태 발생 후**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산림청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